

오전11시	인도 : 최세열목사	
◆경배와 찬양의 예배◆		
※ 입례송 621장(찬양하라 내 영혼아)	다 같이
※ 예배부름	인도자
※ 예배기원	인도자
※ 경배찬송 26장(구세주를 아는 이들)	다 같이
※ 교독문66(시편 150편)	다 같이
※ 신앙고백 (사도신경)	다 같이
찬송 263장(이 세상 험하고)	다 같이
예배기도 1부 한국회집사 2부 박흥만장로	찬양대
응답송	찬양대
협력기도 / 한마음기도 / 중보기도	다 같이
*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 연약한 자들을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 하나님의 감동과 치유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 듣는 예배◆		
성경봉독 옴기 35:10-11	박상귀권사
찬양	임마누엘찬양대
말씀선포	“ 밤에 노래를 주시는 하나님 ”	
기도	최세열목사
◆응답하는 예배◆		
찬송 399(어린 양들이 두려워 말아라)	다 같이
봉헌 (4 구역)	다 같이
봉헌기도	담임목사
성찬식	담임목사
친교와소식	말은이
※ 찬송 1장(만복의 근원 하나님)	다 같이
※ 축도	담임목사
※ 축복송	찬양대
※표는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예배 후에 다섯분 이상, 15분 이상 서로 친교 하십시오.”		

찬양예배 / 오후2시		수요예배 오후7:30		새벽기도회(월-금)	
인도 / 최세열목사	찬양 / 다함께	인도 / 최세열목사	찬양 / 다함께	새벽 5:00	인도 : 담임목사
찬양 / 한상호집사	본문 / 한상호집사	기도 / 말은이	본문 / 갈라디아5:22-24	에스겔 강해	
말씀 / 최세열목사	말씀 / 최세열목사	금요기도회			
* 베드로목회7프레임	성령의 열매 - 자비	오후9시 / 소예배실	합성기도, 중보기도		
1. 사도의 믿음을 따르는 본질목회	주기도문 / 다같이	개인기도			
축도 / 담임목사					
예배위원	안내위원	류종란 김금자 함경숙 김한순	다음주 기도	1부	강은순전도사
		김영란 김기수 노대성		2부	강항구장로
	헌금위원	11월 공영순 이영란 김귀례 한은미	다음주 성경봉독	1부	말은이
		12월 김기희 김애자 김근중 이강영		2부	함경숙권사
식당봉사	금주 사라희	다음주 에스더회	다음주 찬양예배기도	한상호집사	
헌신찬양	금주 4 구역	다음주	6 구역		

밤에 노래를 주시는 하나님 / 옴기 35:10-11

우리는 때때로 인생의 밤을 경험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인생의 밤을 어떻게 견디어 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인생의 고난 가운데 그 문제를 더욱 키워가지만 어떤 분들은 고난 중에 노래하고 찬송하며 문제를 녹여버리기도 합니다. 진실한 그리스도인에게 붙여야 할 별명이 하나 있다면 “밤중에 희망을 노래하는 사람”이라는 별명입니다.

기독교는 노래로 시작하여 노래로 끝나는 종교입니다. 천군 천사와 목자들의 찬양에서 시작된 기독교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대합창으로 끝납니다.

그리스도인은 기쁨의 날에도, 슬픔의 날에도 노래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생의 밤에 노래를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매를 맞고 빌립보 감옥에 갇혔지만 그곳에서도 기도하고 찬송했고, 이로 인하여 간수와 그의 가족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찬송과 찬양으로 새 힘을 얻고,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모두 고난의 밤이라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그 때 그리스도인들은 희망을 노래하고 희망을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1. 고난은 여러 가지 이유로 찾아옵니다.

자신의 잘못으로 인하여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이웃의 부주의로 겪는 애매한 고난도 있습니다. 선을 이루기 위한 고난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를 위해 경험하는 고난도 있습니다.

2. 옴은 어떤 고난을 겪었습니까?

평생토록 모은 재산을 잃었습니다. 하루 아침에 10명의 자식을 잃어버리는 뼈아픈 고통입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친구들이 옴을 저주하고 떠나는 고난을 당합니다. 그리고 건강까지 잃어버리는 고통을 안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고통스러웠던 것은 옴은 이 고난의 이유도, 의미도 알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3. 엘리후가 전해주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첫째, 엘리후는 고난의 밤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말합니다. 자연계에 밤을 만드신 것은 하나님의 창조지혜입니다. 아름다운 꽃은 밤의 준비를 통해 피어납니다. 인생의 밤, 고난은 인생의 꽃을 피우기 위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쇠붙이를 용광로에 달구어 원하는 형태로 만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밤을 중요하게 다루십니다.

둘째, 밤에 노래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엘리후가 소개해 주는 하나님은 밤을 주시는 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밤중에 노래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노래를 주시되 희망의 노래를 주십니다. 이로 인하여 우리는 고난과 시련 가운데서도 “희망을 노래하는 사람”이 됩니다. 밤중에 노래하는 사람은 참 멋진 사람들입니다. 밤중에 부르는 노래는 낮에 부르는 노래와는 다릅니다. 칠흙 같은 어두움과 고통, 외로움, 무덤 같은 침묵을 깨고 감사와 감격의 눈물로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인생의 밤을 지나고 계신 성도 여러분!
인생의 밤을 지나고 계신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 희망의 노래를 부르십시오.
그리고 환난을 지나고 있는 다른 이들을 위로하고 치료하는 희망의 노래를 부르십시오. 또, 그리고 내 영혼이 맑아지는 노래를 부르십시오.

밤중에 노래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 모두 희망을 노래하는 참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주제 / 11. 헌 신(2013.11.24)
제3과 그리스도인의 봉사(에베소서 4장11-16절)

말씀 살피기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서로 연결된 지체들입니다. 지체들이 각자 맡은 자리에서 소임을 다할 때 그 몸은 자라나게 됩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들을 통하여 봉사하며 교회의 일치와 성숙을 이루어가는 일꾼입니다. 내가 맡은 일을 잘 감당할 때 나도 성장하고 교회도 함께 성장하여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갑니다.

1. 교회 안에는 어떤 직분이 있습니까?(11절)
2. 나의 믿음과 봉사가 어디까지 자라갈 수 있습니까?(13,15절)
3. 봉사하는 자의 자세는 무엇입니까?(15절)

말 씀

교회에서 맡은 직분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그 직분을 맡겨주신 주님을 위해 하는 일입니다. 내가 이미 받은 은혜와 감격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마음으로 봉사해야 합니다. 그렇게 봉사할 때 나의 믿음이 자라며 온전한 성도가 됩니다.

첫째, 봉사는 나를 성장하게 합니다.

오랜 신앙생활에도 어린아이같이 자기만 챙겨주기를 바라고, 알아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심으로 봉사하는 사람은 그 일 자체가 남을 섬기고 돕는 것이기에 알아달라는 생각에서 벗어나 기쁨으로 섬기게 됩니다. 우리는 봉사하는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감사함으로 봉사하는 사람은 성숙한 신앙인으로서 헌신하는 사람입니다.

둘째, 봉사는 성도와 교회를 온전하게 합니다.

‘온전함’이란 다른 사람과의 일치와 화합을 통해 한 몸을 이루는 일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되려면 성도가 각각의 위치에서 맡은 직분을 감당해야 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봉사를 통해 온전해 짐으로 교회가 온전해질 때 교회와 그 속에 속한 지체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나게 됩니다. 즉, 나의 영적 성장과 함께 교회도 건강해지고 성장하게 됩니다. 몸이 건강하면 각 기관이 조화를 이루며 잘 자라듯 성도가 건강해지면 교회도 건강해집니다.

셋째, 봉사는 하나님께 칭찬받는 일입니다.

교회에서 봉사할 때 인정받기를 원하고 칭찬 듣기를 바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으면 실망하고, 칭찬이 없으면 무관심하다고 서운해 합니다. 내게 은사를 주신 분도, 직분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범사에 감사함으로 봉사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섬기는 일을 제대로 하면 사람의 칭찬이나 평가보다는 하나님의 평가와 칭찬에 더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성도는 다른 사람들의 봉사와 헌신을 귀하게 여길 줄 압니다.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이라 고백하고 온 힘을 다해 충성할 때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게 됩니다.

말씀적용

1.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할 때 기뻐습니까?
2. 봉사를 하면서 힘들었던 때가 있었다면 언제입니까?

● 오늘 처음 나오신 분이거나 오늘 등록하신 분, 방문하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1. 교회의 2013년 결산과 2014년 예산을 준비하는 예결산 위원회의 모임이 11월 28일(목) 저녁 8시에 전도실에서 있습니다. (위원 - 당회원, 회계부, 제직회 및 교육부서 부장, 남신도회대표/허용집사, 여신도총회장)
2. 교회로부터 예산을 지원받는 모든 부서는 감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일 : 11월30일 오전10시:30분부터 -장소 :교회사무실 -감사 : 이종봉권사, 방옥남권사.
3. 성탄절에 세례를 받으실 분들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4. 다음 주일예배 후에 2014년도 예산을 결의하는 제직회가 있습니다.
5. 구제사역팀 모임이 오늘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있겠습니다. 그동안 해든 출선교사역에 한 번이라도 참여하신 분들은 모두 모여 주십시오.

향기로운 예들과 봉사

- 십 일 조 : 이경훈 김한순 김기수 신혜영 함경숙 서영자 최세열 조성순 김상래 박치국 이영란 김인순 홍강의 김성희 김홍영 박기환 한옥자 김선영 강동균 김현아 강항구 류종란 이종열 박현순 무명
- 감사헌금 : 김동현 나주의 최승연 이완수 김봉순 최세열 조성순 박영주 박 효 (일천번제)김동현 (심방)김애자
- 건축헌금 : 최세열 조성순 박치국 이영란 강항구 류종란 박기환 한옥자 홍강의 김성희 양석임 이종열 박현순 김한순 이득만 함경숙
- 비전앞 : 배영인 김용건 황은상
- 추수감사 : 김기수 신혜영 이운순 심옥섭 김옥길 여순애 강경원 한국희 강푸른 안복선 김애경 양석임 조은미 김홍영 황은상 박지영 선우명환 장영분 김희숙 최승만 심복래 김인순 안진영 안드레 임병호 김경희 오복실 노순영 양희임 김동현 이유자 김선영 이완수 김봉순 최영랑 허 웅 김순님 강항구 류종란 박상귀 공영순 김지환 한상호 차소라 한재현 한진현 강동균 김현아 강소윤 김대현 강지선 김서이 심승기 이종열 김운수 이득만 김한순 김승호 김예진 정선래 김정화 김기희 김병국 김동기 엄동순 김영란 공원배 김중천 이영선 방옥남 김장숙 김연학 박주환 함경숙 서영자 윤종원 김순영 김선주 원혜경 최지현 최세열 조성순 김애자 신공님 이영란 박광섭 주종임 이종춘 심문자 박기환 한옥자 김금자 박윤희 박홍만 정정희 장영란 김혜경 이현옥 김춘자 박희순 정숙자 박경자 송영임 이현화 이윤화 이종봉 이춘호 무명5

구역 예배를 통한 복음전파

구역	인도자	구역장	모인곳	인원	헌 금	성경	모일곳	구역	인도자	구역장	모인곳	인원	헌 금	성경	모일곳
1	박홍만	김금자	김금자	3	9,000	10	이현옥	7	강은순	이영선	이영선	9	16,000	90	서영자
2	정정희	김한순	김한순	7	24,000		심문자	8	김순님	오복실	김상애	3	20,000	30	김장숙
3	이춘호	함경숙					박정일	9	김인순	이영란	김인순	3	11,000	100	박기환
4	김기희	최경선	최경선	5	18,000	70	임애경	10	장영분	박현순	노순영	3	15,000	100	
5	이운순	원혜경		2	10,000		방옥남	계				35	145,000	400	
6	류종란	김애자													

밤이 가고 새 날이 오려면

어느 현자(賢者)가 제자들을 불러놓고 물었습니다. “밤의 어둠이 지나 가고 새 날이 오는 것을 어떻게 아는가?” 한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운 세상이 밝아오는 것을 보면 새 날이 온 것을 알 수 있지요.” 스승은 고개를 저으면서 아니라고 했습니다. “창문을 열고 사물이 그 형체를 드러 내어 나무와 꽃이 보이기 시작하면 새 날이 밝아오는 것을 알 수 있지요.” 스승은 역시 고개를 저으며 아니라고 했습니다. 여러 제자들이 각자의 의견을 나름대로 이야기했지만 스승은 계속 아니라고 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면 스승님은 밤의 어둠이 가고 새 날이 오는 것을 어떻게 아십니까?”

그러자 스승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너희가 눈을 뜨고 주위를 둘러 보았을 때 지나다니는 모든 사람이 형제로 보이면 그때 비로소 새 날이 밝아온 것이다.”

새 날은 아침이 옴으로써 시작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웃을 형제로 보고 그들을 사랑으로 대할 때 비로소 시작됩니다.

밤이 깊을수록 새벽은 가까워 온다

아더 랭크라는 영국의 실업가는 사업에 대한 고민과 걱정으로 항상 불안했습니다. 많은 염려 가운데 살던 그는 ‘염려에서 벗어나 살 수 있는 방법이 뭐 없을까?’ 하고 생각하다가 좋은 아이디어를 얻었습니다. 그는 매주 수요일을 염려의 날로 정하고 걱정거리가 생길 때마다 걱정거리가 생긴 날짜와 내용들을 적어 상자에 넣어 두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수요일 날, 그는 상자 속의 메모지를 살펴보다가 문득 이런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상자에 넣을 당시만 해도 큰 문젯거리였던 그것이 훗날 다시 입을 즈음에는 별로 큰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이 상자를 계속 활용하면서 그가 깨닫게 된 것은, 사람이 살면서 크게 고민하며 염려할 일이 별로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은 염려의 무가치성에 대해서 이보다 훨씬 더 명쾌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마 6:27). 생각과 염려는 다릅니다. 해결해야 할 문제에 대해 생각하고 해결 방안을 찾되, 전전긍긍하며 염려에 얽매어서는 안 됩니다. 염려는 미래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에서 생겨나므로 매사를 긍정적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래도 염려가 밀려올 때는 “하나님, 염려한다고 해서 나아지는 것이 아무 것도 없는데도 자꾸 염려하게 됩니다. 저의 염려의 목록들을 조목 조목 아뢰오니 말아 해결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우리의 문제를 주님께 내어 맡기면, 주님께서 그 염려들을 명쾌한 응답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원천교회비전선언문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여 한 몸이 되고, 한 몸 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교육과 훈련을 통하여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주님께서 맡기신 사역을 따라 교회에서 헌신하고, 세상에서 선교 한다”

2013-47

2013.11.24

겨울이 오면 실상을 보게 하시니.

창조주 하나님.

자연 속에 겨울을 두시어 만물을 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겨울이 오면 걸치레는 드러나 실상이 노출되고 삼물의 단순성과 깊이가 현시됨을 감사합니다.

저희는 꽃과 잎만을 보고 흙속에 덮인 뿌리를 보지 못하오니 저희의 어리석음을 깨우치소서.

인생은 한 그루의 생명나무,

그리스도의 생명뿌리에 잇대어 살게 하소서.

아담과 이브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하나님.

우리 속사람이 당신 앞에 벌거벗지 않도록 그리스도 새 생명 옷으로 덧입혀 주소서.

그리스도 새 아담 안에는 영원히 겨울이 없음을 저희는 믿습니다.

사랑의 왕국엔 겨울이 없음을 저희가 믿습니다.

옛 아담 안에서 다가오는 겨울을 곳곳이 맞이하게 하시고

새 아담 안에서 영원한 봄을 앞당겨 살게 하소서.

아멘.

(향아리에 물을 채워라 중에서)

새가족 환영

우리와 함께 믿음의 삶을 나누는 한 가족이 된 장영란 성도님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 장영란 : 수원시 팔달구 화서동 성원상떼빌 아파트 103동 1505호 (070-4078-3207/마르다회/인도자:장영분권사)

담당목사 : 최세열(imcsr@hanmail.net)

시무장로 : 박홍만 강항구

교육전도사: 강은순, 이경훈 지휘:김영란 반주:안진영